

## 13차시

### 재무와 회계의 기본 쌓기

#### 학습 내용

1. 재무상태가 한눈에, 대차대조표
2. 손익흐름이 한눈에, 손익계산서
3. 시황뉴스의 단골, 주식
4. 종류와 형태가 형형색색, 채권
5. Biz Insight

## 1. 재무상태가 한눈에, 대차대조표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그 학생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 준다. 신체적 특성, 학교 성적, 근면성 등. 기업도 생활기록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무제표이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산 목록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이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금의 운용상황과 그 조달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장부이다. 기업의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진다. 자본은 자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이며, 부채는 빌린 돈이다. 100억 원짜리 기업을 설립하는 데 50억 원을 빌렸다면, 이 기업의 자산은 100억 원, 자본은 50억 원, 부채는 50억 원이다. 대차대조표의 좌변은 자산, 우변은 부채와 자본을 기입한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므로 좌변과 우변의 합은 당연히 같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눈다. 유동성은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유동자산이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현금, 주식, 만기가 1년 미만인 채권, 재고 등이 이에 속한다. 고정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하기 힘든 자산으로 부동산, 기계설비, 만기가 1년 초과인 채권 등이 해당된다.

'자산'항목을 보면, 그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을 알 수 있다. '유동자산'이 풍부할 경우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동자산 중 재고항목은 애매한 부분이다. 불황기에 재고는 헐값으로 팔 수 밖에 없거나, 안 팔려서 그대로 손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정자산' 중 기계설비나 비품 등은 감가상각을 한 후의 평가액을 쓴다. 감가상각이란 전년도 생산에 사용된 비품이나 기계설비의 마모된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부채+자본' 항목을 보면, 자금의 조달처를 볼 수 있다.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고정부채로 이루어져 있다. 부채는 남에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타인자본이라고 한다.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볼 수 있다.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해서 얻은 주주들의 투자금이며,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말한다. 이것은 회사의 자본이기 때문에 자기자본이라고 한다. 이제 앞에서 말한 것을 정리해 보자.

대차대조표에 나온 금액들은 장부에 기록된 장부가치이며 시장가치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볼 때는 장부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손익흐름이 한눈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월이나 분기 등의 기업 성과를 나타내는 장부이다. 대차대조표가 순간을 포착하는 ‘스냅사진’이라면 손익계산서는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대차대조표는 항목별로 그냥 나열한 것이지만, 손익계산서는 일종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 구조를 쉽게 알 수 있다.

손익계산서

기업의 수익구조

① 매출액	1,500억원
② 매출원가	500억원
③ 판매관리비	200억원
④ 영업이익	800억원
⑤ 영업외수익	100억원
⑥ 영업외비용	100억원
⑦ 이자비용	200억원
⑧ 법인세 차감전순이익(EBT)	600억원
⑨ 법인세	100억원
⑩ 당기순이익	500억원

영업비용

1) 매출액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이다. 2) 매출원가와 3) 판매관리비를 보통 '영업비용'이라고 한다.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4. 영업이익이 된다.

4) 영업이익에 5) 영업외수익을 더한 후, 여기에서 6) 영업외비용과 7) 이자비용을 빼면 8) 법인세차감전순이익(EBT)이 나온다. 영업이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부채가 많아 이자비용 등이 많을 경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현저히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8) 법인세차감전순이익(EBT)에서 기업의 세금인 9) 법인세를 차감하면 10) 당기순이익이 된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같다. 그런데 생활기록부가 그 학생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자료일까?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는 기업을 이해하는데 가장 유용한 자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숫자 뒤에 많은 진실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3. 시황뉴스의 단골, 주식

주식(Stock)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재산가치를 가진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이며 '주권'이라고도 한다.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 일정 단위로 나눈 수만큼의 주식을 발행하며, 주주는 자본금에 기여한 만큼 주식을 갖게 된다. 이때 주주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분이라고 하고 그 비율을 지분율이라고 한다. 주주 10명이 각각 1,000만원씩 모아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주당 가격이 1,000원이라면, 총 주식 발행수는 10만주이며, 10명의 주주들은 각각 1만주를 갖게 된다.

처음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은 주식 액면에 표시되는데 이를 액면가라고 한다. 액면가는 현재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액면가를 표시하지 않고 지분율만 표시한 무액면 주식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거나 인수합병 때 주로 활용되는 데, 우리나라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은 양도할 수 있으며 매매도 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통해 정해지는 가격을 시장가격인 시가라고 한다. 주주는 그 기업의 주인으로서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이 있으며, 보유 주식 수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에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보통주도 대부분 배당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엄청난 이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 4. 종류와 형태가 형형색색, 채권

보통 일반인은 채권보다 주식을 더 친숙하게 느끼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훨씬 크고, 금융회사나 대기업, 연기금 등 큰손들은 주식보다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한다.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기업 등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일종의 빚 문서이며, 기업운용에 장기적으로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증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은 법률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은 발행기관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공채,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이 있다. 국채와 공공채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보통 공채라고 한다.

채권의 표면에는 가격이 적혀 있는데 이를 액면가라고 한다. 액면가와 달리 발행 당시에 실제로 매매되는 가격을 '발행가'라고 한다.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높은 채권은 할증채이고,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낮은 채권은 할인채이다. 대부분의 채권은 할인채로 발행된다.

만기는 채권의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까지의 기간으로 3개월 만기, 1년 만기, 3년 만기 등 다양하다. 채권의 매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잔존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미 발행된 채권을 중도에 매매할 경우 그 매매일부터 원금상환까지가 잔존기간임에 유의해야 한다.

표면금리는 채권 표면에 적힌 금리를 말한다. 정기적으로,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불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로 '쿠폰금리' 또는 '발행금리'라고도 한다. 만기수익률은 만기가 되었을 때의 수익률로 '최종수익률'이라고 한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받는 모든 투자수익이 투자원금에 대해 연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예상 수익률이다.

채권의 표면금리(쿠폰금리)와 채권금리는 다르다. 표면금리는 발행 시 정해져 있지만, 채권금리는 시장금리로 채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므로 수시로 변한다. 기업의 부도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는 채권을 사려는 사람은 적고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므로 채권금리가 높아진다. 반면 채권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시장에서 채권금리는 낮아진다.

## Biz insight

워런 버핏, 투자계의 살아있는 전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란 세월이 걸리지만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걸 명심 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 워런 버핏

“나는 그(오바마)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투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이자 기업가인 워런 버핏이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의 재선을 돕기 위해 던진 말이다. 그래서 워런 버핏을 ‘오바마의 현인(Oracle of Obama)’라 한다. 실제 오바마는 워런 버핏의 도움으로 재선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버핏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안을 내 걸기도 하면서 투자신과의 돈독함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원래 버핏은 오바마의 현인 아니라 ‘오마하의 현인(Oracle of Omaha)’이라 불렸다. 많이 이 둘을 혼동한다.

버핏이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려왔던 이유는 그가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시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낸 하워드 호만 버핏의 아들로 태어났다. 평범한 생활을 한 듯 보이지만 그의 아버지가 하원의원을 하기 전에 증권중개인을 한 영향으로 주식투자를 11살 때부터 시작하게 된다. 전해져 오는 말에 의하면 버핏은 자신이 11살에 주식투자를 했던 것을 매우 후회한다고 한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물정을 알아버려서가 아니라 5살이나 7살에 시작했으면 주식 투자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것이다. 정말 그다운 발상이다.

그러나 버핏의 인생을 제대로 바뀌게 된 것은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가치투자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과의 만남이었다. 버핏 스스로도 자신의 투자 스승은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버핏은 버크셔 헤서웨이를 세우고 투자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버핏이 위대한 점은 한탕으로 크게 번 것이 아니었다. 지난 40년간 매년 20%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실로 이것은 투자계에서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20%라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매년 복리로 올리는 수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버핏에게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40년 후에는 300만 달러에 가까운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결국 워런 버핏은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하게 된다.

워런 버핏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버핏이 어떤 주식이 언제 오를지를 족집게처럼 예측하여 돈을 번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개미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식

이다. 그러나 버핏은 개별종목이나 시장전체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시장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기업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구조 때문이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주회사로 이른바 지속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가 본격적으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한 1970년대에 이미 자회사인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현금으로 운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만 1억 달러에 달했고, 보험사와 은행의 순익으로 해마다 수백만 달러의 현금이 더 들어왔다. 그는 아무리 주식을 사더라도 더 살 수 있는 현금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투자해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도 없었고 투자할 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이러한 기반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업평가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든 간에 완벽히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일견 생각하는 주가 예측의 달인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라는 포커 판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으로 실제로 투자자의 기질보다 더 뛰어난 기업가적 기질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워런 버핏이 진짜 존경 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투자 능력때문 만은 아니다. 그는 2014년 7월에 28억 달러를 기부했다. 3조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건 그의 기부 행보에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이미 그는 2006년에 '평생 동안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재산의 99%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의 재산은 2014년 7월 현재 658억 달러, 65조가 넘는다.

이런 그이기에 매년 점심식사 자선경매에서 20억을 넘게 내면서까지 그를 만나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솔직히 나 또한 그와 점심을 함께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다.